

# 청화 스님 등단 31년 만에 첫 시집

## 조계종 교육원장 퇴임하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내다

예나 지금이나 수행자의 표상은 '상구보리하화중생'이다. 시인이라고 다를 것이 없다. 자신의 시적 열락과 깨달음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대승적 노력이 시인의 몫이다. 더구나 스님이 시를 쓴다면 그 시는 한 편 한 편이 깨달음의 노래이고 깨우침의 죽비소리 아니겠는가?

최근 조계종 교육원장 자리를 내놓은 청화 스님이 바로 그런 시를 쓰고 발표하는 스님이다. 등단하기 무섭게 시집을 쏟아내는 것이 문단 풍토임에도, 참고 또 참았다가 등단한지



31년 만에 첫 시집을 내었다. 청화 스님은 첫 시집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자신의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강물 저 강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이런 시 저런 시'가 모여 한 권의 시집을 이루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런 시 저런 시'라고 해서 한 편도 가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스님은 "한 수행자로서 또는 한 시인으로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면서 살아 왔는지 숨김없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자신의 시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런 입장을 충분히 감지한 김승배 시인은 청화 스님의 시들을 "비범한 사유에서 창출된 인간의 진실이라는 대명제를 실현하려는 시적 원류를 확인하게 된다"고 높이하고 있다.

임연태 기자



오세영 시인.

신달자 시인.

홍성란 시조 시인.

송준영 시인.

# 시인이 되고 싶다고? 유심아카데미에 가봐

## 오세영 신달자 홍성란 등 창작교실 인기... '열린논단'도 주목

유심아카데미와 열린논단이 불교와 문학, 사상, 학문의 영역을 삶의 현장으로 확산시키는 새로운 아이콘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유심아카데미는 시전문 격월간 문예지 <유심>이 개설한 유심문예아카데미와 유심불교아카데미의 총칭이다. 올 들어 <유심>이 서울 신사동 만해사상 실천선양회로 사무실을 옮기고 불교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개설한 창작 및 교양 강좌다. 열린논단은 <불교평론>이 격주로 주관하는 포럼이다.

유심 문예아카데미의 핵심은 국내 최고의 작가들이 이끄는 창작 교실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6시에는 홍성란 시조시인의 시조 창작교실(홍성란 시조 아카데미)이 열린다. 시조의 기본 개념에서부터 창작 실기는 물론 낭송과 감상법도 익힌다. 시조창을 감상하고 직접 배우기도 한다. 강좌의 중심은 시조 창작이다. 3월 9일 첫 강좌를 시작했으며 등단한 시조시인은 물론 자유시를 쓰는 시인들도 다수 참여한다. 홍성란 시조시인은 3개월을 단위로 하는 강좌의 마지막을 공개강좌로 진행하고 심화과정과 초급 과정으로 분리해 강좌를 이끌어 갈 계획도 세우고 있다.

매주 화요일 오후 4시에는 신달자 시인이 시인 지망생과 등단 시인들을 대상으로 시 창작 교실(신달자 문예창작아카데미)을 이끌고 있다. 강좌는 3개월 단위로 계속 수강하면서 창작 실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 3월 11일 공개강좌를 한 뒤 17일부터 본격적인 강좌에 돌입했다. 현재 12명의 수강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부분 등단 이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신달자 시인의 강좌는 기본기에서 출발한다.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시의 길을 열어 보고 싶다"는 열정을 가지고 모였기 때문이다. 이런 자리에 초심자가 끼면 '대박'이다. 시 창작에 대한 기본기는 물론 기성 문인들과도 만나 많은 조언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목요일 오후 4시에는 오세영 시인의 시 창작교실(청강문화교실)이 열린다. 역시 12명의 수강생이 3월 12일부터 '열광'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등단을 목표로 하는 시인지망생들이다. 기본적인 문학이론을 곁들이면서 실기 위주로 강좌가 진행된다. 습작을 낭독하고 작품에 대해 서로 토론하는 형식이다. 오세영 시인이 토론의 즐거움을 이끌면서 시 창작의 눈높이를 향상시켜 준다. 시간적인 제한을 두지 않

고 있으며 시인이 되고 싶은 뜨거운 꿈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동참할 수 있다.

유심불교아카데미는 경전과 어록 등 불교 공부를 할 수 있는 코스 '경전과 선어록 깊이 읽기'다. 3월 12일부터 송준영 시인의 '반야심경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공(空)' 사상의 경전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반야심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견해들을 통섭하고 문학적 관점에서 읽는 것이 이 강좌의 특징이다.

유심아카데미와는 별도로 격주로 열리는 불교평론 열린논단도 주목받는다. <유심>과 함께 만해사상 실천선양회가 발행하는 본격 불교학술 매거진 <불교평론>이 불교로 세상을 바라보는 길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열린논단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금요일 오후 6시에 열린다. 매회 기획된 주제를 권위 있는 발제자가 발표하고 그에 대해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주제는 주로 학계의 이슈나 사회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는 영역에서 추출되어 매회 학계의 관심을 모은다. 토론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유심아카데미는 앞으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문을 넓힐 계획이다. 02-739-5781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 사진작가 전제우

### '청전스님과 함께 한 라닥 이야기'

4월 8~14일 모로갤러리



북인도 히말라야 라닥지역 곱빠(사원)의 생활상을 밀도 있게 담은 사진전이 열린다.

송만 전제우 한국불교사진연구소장은 4월 8~14일 서울 모로갤러리에서 '청전 스님과 함께한 북인도 라닥 곱빠 이야기'를 주제로 네 번째 개인전

을 연다.

해발 3500~5000m 히말라야 기슭에 위치한 라닥 오지의 아름다운 자연과 사원, 스님들의 생활상을 찍은 작품들은 자세한 설명을 첨부해 티베트불교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전제우 소장은 "이번 작품들은 지난 여름 청전 스님과 함께 북인도를 순례하며 찍은 사진"이라며 "전시회 수익금은 청전 스님의 라닥 보살행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02)2266-0302

김성우 기자

## 음악으로 깨닫는 '심우도 이야기'

니르바나오케스트라 3일 KBS홀서 연주

기축년 소의 해를 맞아 대표적 선화(禪畵)인 '심우도(心牛圖)'를 네 가지 주제의 법문과 공연으로 보고 듣는 봉축 연주회가 열린다.

니르바나팔하모닉오케스트라(단장 강형진)는 4월 3일 오후 7시30분 KBS홀에서 '월호 스님과 함께하는 심우도 이야기'를 주제로 제11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공연은 월호 스님의 진행으로 '피가로의 결혼 서곡' 연주에 이어 △참회(심우, 견적, 견우)-인숙선의 보림 △기도(득우, 목우, 기우) △가-법승 스님의 신묘장구대다라니 △발원(도가방우, 인우) △반본환원-법현 스님의 법배 및 군무 △입전수수- '월리엄텔 서곡'의 순으로 진행된다. (02)718-4599



청강문화교실 모습.



3월 27일 불교평론 열린논단 토론 모습.

# 신제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귀의 삼보하옵고,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 기업입니다.

사찰 및 불자님들께서 필요하신 양초 문의시 성실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유통 중인 모든 양초를 제조 판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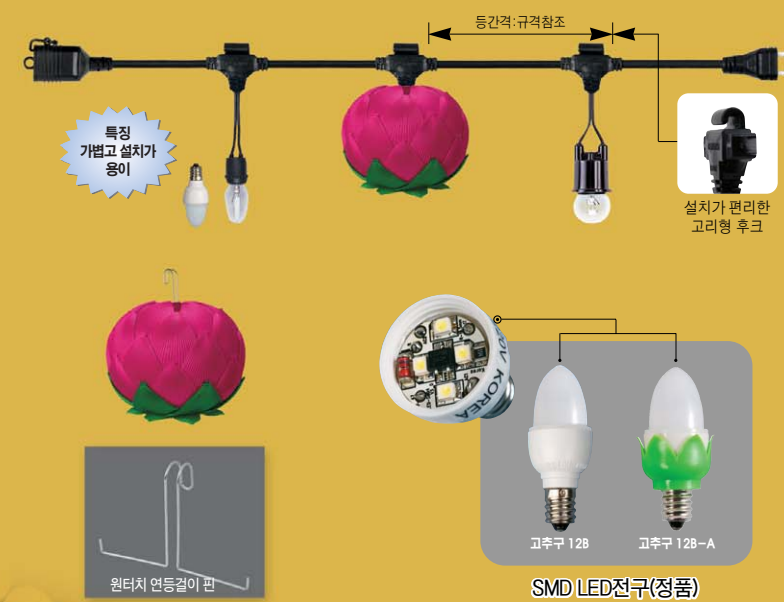
우창산업 (삼환양초)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현리 35-16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구매시 카드결제가능

## 사찰 연등 및 전선 (범당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특정 기법고 설치기 용이

설치가 편리한 고려형 주크

원터치 연등결이 편

SMD LED전구(정품)

##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사찰 LED전구(정품)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범당용, 외곽용
- ▶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 3W, 5W, 10W
- ▶특 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안전지중조 방범, 침범이 행사중  
▶장사조를 방범, 침범이

▶범당용(공단용),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